



올해로 86회째인 춘향제는 '춘향! 깨지지 않는 사랑'을 주제로 전통문화, 공연예술, 놀이·체험, 부대행사 등 4개 분야, 24개 종목이 광한루원과 요천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 춘향제 오늘 화려한 개막

### 16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국내 예술축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춘향제가 13일 저녁 7시 광한루원 안월정 특설무대에서 개막식과 축하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올해로 86회째인 춘향제는 '춘향! 깨지지 않는 사랑'을 주제로 전통문화, 공연예술, 놀이·체험, 부대행사 등 4개 분야, 24개 종목이 광한루원과 요천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12일 사전행사로 춘향제의 상징 프로그램인 '춘향선발대회'를 시작으로 16일까지 펼쳐지는 춘향제는 춘향제향, '세기의 사랑' 공연예술

제, 사랑을 위한 길놀이 춤 공연 '이관·사관·춘관', 지금은 춘향시대 등 춘향전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랑체험마당, 농경문화 체험 등 가족들과 연인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올해 춘향제 개막공연은 남원만이 간직하고 있는 독특한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오늘이 오늘이소서' 공연으로 올려진다. 고려후부터 조선 중기까지 일반평민들이 즐겨부르던 노래인 '오늘이 오늘이소서' 공연으로 항상 오늘날이 좋은날만 되기를 기원하며 공연

을 통해 남원 축제의 노래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개막공연의 특징은 사랑춤으로 사랑의 등불행렬이 개막식장에 도착하면 천여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사랑춤 한 마당이 펼쳐진다.

불꽃놀이 행사는 작년과 다르게 오후 9시 30분부터 10여분간 승사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밤하늘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어서 조항조와 노을, 스테파니 등 출연하여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이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4곳 설치

임실군은 군민과 외지 탐방객의 길안내 편의 제공 및 관광안내를 위해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4개소를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임실치즈테마파크, 군청, 국립호국원, 관촌면 고추시장 인근 승강장에 도로명과 주변 시설물 및 군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지역 안내판을 설치해 도로명 주소 인식 제고에 나섰다.

또한,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 구담마을 등 군의 주요 관광명소를 소개해 지역 관광 홍보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도로명 주소에 대한 관심



을 유도하고 중요성 및 활용방안 등을 적극 알리겠다"며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 상하 '아름다운 마을'에 나눔 숲 조성

### 이달 착공 8월 완공 목표

고창군 상하면 사회복지법인(장애인 거주시설) '아름다운 마을'에 자연친화적인 숲이 조성돼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상하면 용대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에는 장애우 5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아름다운 마을'은 지난 9월 산림청 녹색사업단이 추진하는 '녹색자금사업'에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8천만원을 확보하고 '나눔 숲' 조성을 추진해 지난 달 완공했다.

시설 내에 조성된 산책로에는 유실

수와 꽃나무들이 식재되어 거주 장애우 뿐만 아니라 군민과 학생들이 찾아와 사진도 찍고 자연탐방을 하며 자연친화적 습터로 사랑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고창을 울게리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 종합사회복지관도 '나눔 숲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확보하고 이달 중 착공하여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편 '녹색자금사업'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공급 등 산림의 환경기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복권 기금의 수익금중 일부를 배분받아 추진되는 사업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혈우병 등 134종 대상

임실군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로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가능하

며 대상 질환은 혈우병, 중증 근무력증, 크론병, 부석종인 만성신부전증, 전신 홍반성 투푸스, 류코다당증 등 134종의 질환군이다.

지원 항목은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을 위한 소모성재료 구입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기침유발기 대여료(월 18만원이내) ▲간병비(11종)

▲특수식이 구입비(7개 질환)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 1,136건 총 3천3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며 "올해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군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임실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063-640-3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군,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고창군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제401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고창읍 일원에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읍 이상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이다.

고창에서는 16일 오후 2시 민방공 경보발령을 시작으로 공무원, 경찰, 8098부대 2대대 및 민방위 대원을 중심으로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및 주민 자율 대피훈련(20개소)'과 고창군청 오거리, 터미널 사거리 등 7개 지점에서 '차량 통제 훈련', 고창 IC진

입로에서 군·경 합동으로 '전시 교통통제소 점령훈련' 등이 실시되며,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자체 대피훈련을 진행 할 계획이다.

군은 훈련을 앞두고 고창읍 시가지 일원에 민방위기를 게시하고 훈련 실시 현수막을 주요 지점에 게시했으며, 군청, 터미널, 전통시장 등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훈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애향장학회 51명에 장학증서 수여

재단법인 임실군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는 '2016년 애향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12일 개최했다.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번 수여식은 심민 군수, 장학생 및 학부모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생으로 선발된 51명(대학생 41, 고등학생 10)을 대상으로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임실군 애향장학회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된 113명(대학생 96, 고등학생 17)중 51명(대학생 41, 고등학생 10)을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열어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했으며, 대학생 1인당 200만원, 고등학생 1인당 60만원의 장학금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급받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소방서 '등산목 안전지킴이'

남원소방서(서장 이흥재)는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지리산 바래봉 코스와 강천산 일대에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2명과 의용소방대원 8명으로 편성된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4월말부터 5월말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 운영된다.

지킴이들은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악사고 예방수칙 및 산악사고 시 인명구조, 응급처치 교육, 산불예방 홍보와 함께 희망자들에게 혈압체크 등 간단한 건강체조를 해 신체 이상 징후자에게 등산자제 요청을 실시한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등산 전에 반드시 산악사고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모든 등산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원소방서는 5월 둘째주까지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300여명에 대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50여명에 대해 혈압체크 및 19명에 대해 상비약품을 배부해 안전한 산행을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재난대응 안전 훈련' 점검

임실군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는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3차 사전기획회의'와 관계관회의를 통합 개최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실전위주의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점검하는 훈련으로 대형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군민들의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훈련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유관기관 및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찰서, 119 안전센터, 7733부대 2대대, 군자율방재단, 민간예찰단 등 협업기관의 상호협조 극대화를 위해 진행됐다.

한편, 군은 오는 16일 오전 6시 전 직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오후 2시는 임실을 일원에서 민방위 대피훈련과 교통통제 훈련을 실시하고 17일은 지진훈련, 19일은 댐붕괴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의 경이로움, 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는 여기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